

# 경제 회복의 온기 확산을 위해 쏠 공공부문 상반기 신속집행 총력

- 기재부 2차관, 제1차 관계부처 합동 「재정집행 점검회의」 개최
- 상반기 중 재정, 공공기관 투자, 민간투자 부문 총 388조원(잠정) 투입
- 약자복지 45.5조원, 일자리 10.0조원, SOC 15.7조원 상반기 집중 집행

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.18.(목) 16: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「재정집행 점검회의」를 주재하여 ‘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및 각 부처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.

\* 참석부처 : 행안부, 교육부, 복지부, 국토부, 해수부, 중기부, 환경부, 고용부 등

김 차관은 “올해 건설경기 둔화 및 고금리·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”이라고 하면서 “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 350.4조원, 공공기관 투자 34.9조원, 민간투자 2.7조원 등 총 388조원을 투입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특히 “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·일자리·SOC 분야 약 110조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%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여 서민·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”고 언급했다.

아울러, 김 차관은 “재정 집행을 통한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1분기에는 매주 개최하여 집행상황을 수시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”고 하면서, “행안부·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·지방교육청 등 일선 집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면밀한 관리를 병행할 것”임을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재정성과관리과	책임자	과 장	마용재 (044-215-5330)
		담당자	사무관	김희준 (first3828@korea.kr)
			사무관	신수용 (ssy2516@korea.kr)

- 지금부터 '24년도 제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, 그간 누적된 고물가·고금리 부담 등으로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
- 이에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**쏠 공공부문**(재정, 공공기관·민간 투자)의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
**[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]**

- 우선, **쏠 공공부문**(재정, 공공기관·민간 투자) 연간 집행계획 총 629.9조원\*(잠정 추계) 중 **역대 최대수준인 388.0조원\*\***을 상반기에 신속집행 할 계획입니다.

\* 중앙재정·지방재정·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·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중 재량지출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대상 선정

\*\* ①재정 350.4조원 + ②공공기관 투자 34.9조원 + ③민간투자 2.7조원

- 재정은 약자복지, 일자리, SOC 등(약 110조원\*)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**역대 최대인 65% 이상**을 집행하여 **취약계층 부담완화, 지역경제 활성화**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\* 약자복지 70.0조원, 일자리 14.9조원, SOC 24.2조원

- ① 먼저 약자복지 분야는 예산 70.0조원 중 **45.5조원(65%)**을 상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.

- 지원인원이 14만명(23년 12만명)으로 확대된 **국가근로장학금**, **대폭 인상**(4인가구 기준 162→183만원)된 **생계급여** 등을 통해 **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**드리겠습니다.

- ② 일자리 분야는 예산 14.9조원 중 **10.0조원(67%)**을 상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.

- 노인일자리 참여자 **조기 모집**('23.11.29~12.28 신청·접수 완료) 등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, **1월부터 시행되는 '6+6(기존 3+3) 부모육아휴직제'** 집중 홍보 등 제도 활용을 **확산**해 나가겠습니다.

\* 자녀 생후 18개월(기존 12개월) 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모 각각 첫 6개월(기존 3개월)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월 최대 200~450만원 기존 200~300만원하여 지원

③ SOC 분야는 예산 24.2조원 중 15.7조원(65%)을 상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.

- 도로·철도 등 집행가능 건설사업에 대한 상반기에 자금배정을 집중하고, 선급금을 최대한 지급하는 한편
- 보조·위탁·공모사업은 1월 발주하고, 3월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.

□ 이와 함께,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.9조원, 2.7조원을 집행하여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
### [ 재정집행 관리방안 ]

□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%를 신속히 배정하고 선급 지급한도를 확대\*하는 등 집행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.

\*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선급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계약특례 추진(「국고금 관리법 시행령」 입법예고, 1.15일)

- 또한,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(기재부 2차관 주재)를 정기(1분기는 매주 개최), 수시로 개최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고,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.

□ 아울러,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300억원 규모 (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)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, 중앙부처는 '기본경비 예산' 편성시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반영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습니다.

□ 마지막으로, 재정 집행을 통한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, 행안부·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·지방교육청 등 일선 집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면밀한 관리를 병행하겠습니다.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